

광주 가로수 '樹亂'

봉선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 방해 은행나무 '싹둑'

상무지구선 플라타너스에 구멍 뚫어 제조제 투입

광주지역에 심어진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다. 누군가 구멍을 내 제조제를 투여하는가 하면 대로변의 가로수가 밀동째 잘려나가 관할 자치구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께 상무지구 한 모델 앞에 심어진 플라타너스 두 그루에서 공구로 뚫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2cm 가량의 구멍 4~5개가 각각 발견됐다. 나무에 뚫린 구멍에서는 제조제가 투여된 흔적도 보였다.

앞서 지난 6월 인근 대로변에 심어진 또 다른 플라타너스 세 그루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크기의 구멍과 제조제 투여 흔적이 발견됐다.

구멍이 뚫리고 제조제가 투여된 가로수들은 고사하거나 잎이 떨어지는 등 고사 직전 상태다. 서구는 한 그루에 100만원 가량의 플라타너스를 훼손한 범인이 인근 건물주 또는 상점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남구 봉선동 한 상가 주변에 심어진 은행나무 한 그루를 누군가 밀동째 잘라버렸다는 신고가 남구청에 접수됐다.

현장조사를 벌인 남구는 은행나무를 자른 사람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인근 건물의 공사 관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청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가로수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가로수에 심어진 은행나무를 훼손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훼손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구는 플라타너스에 구멍을 뚫은 뒤 제조제를 투여한 범인이 검거될 경우 관련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설치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인 만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6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대로변에 심어진 플라타너스가 누군가 투여한 제조제로 고사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제조제가 투여된 구멍의 모습.

성범죄 교직원 '숨방망이 처벌'

70%는 복직 가능한 경징계 그쳐

최근 교육현장의 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이 가능한 경징계에 그쳐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학교의 행정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

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감봉(10명)·견책(10명)·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였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해임(9명)은 30.2%(16명)였다. 53명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9.6%(21명)였다. 그중에서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은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미성년자 성추행·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징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조림서 내분비 교란 환경호르몬

시중에서 유통 중인 통조림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물질로 의심받는 화학물질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과일 및 육수수 통조림 30종에 대해 비스페놀A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15종에서 6~60 μg/kg의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2종에서는 각각 141 μg/kg, 169 μg/kg 검출됐다.

비스페놀A는 통조림 내부를 코팅하는 독성물질로, 유아용 젓병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를 낮추려는 노력이 시급하며, 식약청과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은 식품 내 비스페놀A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대 교수 100명 중 6명

"영리기관 사외이사 겸직"

서울대는 교수 100명 가운데 10명이, 전남대는 6명이 각각 영리기관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대를 비롯해 10개 개점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국 주요 국립대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1만301명 중 468명(4.7%)이 영리기관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교수 1887명 중 174명(9.2%)이 영리기관 직책을 맡아 겸직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110명은 대기업과 은행 등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강원대(6.0%), 전남대(5.5%), 경북대(4.6%), 충남대(4.6%), 전북대(3.6%), 충북대(2.2%), 부산대(1.3%) 등의 순이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바람이 불고, 다소 건조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0/23°C
목포	맑음	12/22°C
여수	맑음	14/22°C
나주	맑음	8/23°C
완도	맑음	11/23°C
구례	맑음	8/23°C
강진	맑음	10/23°C
해남	맑음	8/23°C
장흥	맑음	8/24°C
순천	맑음	11/23°C
영광	맑음	8/21°C
진도	맑음	10/23°C
전주	맑음	8/23°C
군산	맑음	8/21°C
남원	맑음	4/23°C
홍산도	맑음	15/18°C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	주의	낮음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최저/최고	9/24	13/24	14/23	14/24	15/23	15/22

'청부폭행' 피준 이윤재 회장 운전기사 자수

'청부 폭행' 의혹에 휘말린 피준 이윤재 회장의 운전기사 송모(59)씨가 6일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 회장으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건네 받아 조직 폭력배들에게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할 것을 지시한 김모(50) 이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이날 오후 5시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광주 폭력조직 무등산과 소속 조직원 3명은 지난해 5월 귀가 중이던 이 전 사장을 발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김 이사와 조직 폭력배들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강남구 역삼동 피준 본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회장을 5일 조사한 데 이어 7일 오전 10시 재소환한다. /연합뉴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리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사업내용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SMP가격과 인증서 판매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 및 RPS기관에 판매하는 발전 시스템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 통하여 결정

▶신청대상: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를 소유한 자

▶수익성: 건설 투자비 회수는 약 8~9년, 수익은 건설비용의 약 2배 창출

▶건설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사업허가~준공까지)

3kw기준 시공 태양광 주택

내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설치효과 월 평균 92,49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5,11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365일 신청접수

상문의 062)268-5118 | 017-310-4119 | 017-601-0955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JEONG WOO ENG CO., LTD.

잡음없이 잘 들린다 음성증폭기 블루투스형출시!!

속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너무 편리한 소리큐 S20 고성능 음성증폭기

음성이 잘 안들리실 때!
 두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TV를 시청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핸드폰 통화할 때! 상담할 때!
 강의를 하면서 대중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 (고속충전·정시간 사용)

귀에 꽂은 상태로 작은소리를 크게 듣고싶은 분들에게 소리큐 S20 음성 증폭기는 좋은 친구가 될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특별우대 ★ 어르신께 최고의 선물 ★

인체공학적인 초소형 초경량 블루투스형 설계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간편한 휴대, 간편한 사용!

무게 9g 길이 5.5cm의 초경량 초소형 인체공학적인 블루투스형 설계로 착용시 무게감이 없어 편안하며 TV시청, 운동, 업무처리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노출시 거리낌 염려가 없고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사용 할수 있게 설계된 첨단 고성능 음성증폭기로 성능 올리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뛰어난 품질과 사후관리를 1년간 무료교환 보장합니다.

▶이어부식 사용 ▶편리한 사용방법 ▶목격자로 분신 걱정없이 휴대가능 ▶양쪽 귀로 청취가능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일상대화 | 텔레비전 시청 | 공연관람 | 강연회 | 조류관찰 | 자연관찰 | 야간감시 등등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0-6번지 송정한방병원 건물 4층 원일엠에스

문의: 062)942-9822